

#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 The Types of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al Behaviors Experienced by Adolescents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경주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신호식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Lecturer : Kyeong Ju,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Hyo Shick, Shin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al behaviors of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48 junior and senior middle school students. Statistics were frequencies, percentile, Pearson's r-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s of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al behaviors.
2. The variables, neglect,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and physical abuse were foun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social withdrawal. Neglect,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and sex of the child were foun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hyperactivity. Neglect, emotional abuse,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aggression. Sex of the child, emotional abuse,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retreat. And, neglect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obsessive-compuls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고에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자녀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학대에 관한 사회적 태도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동시에 자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녀학대의 경험적 연구는 1960년대경 Kempe와 Helfer(1968)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자녀학대의 정의나 진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녀 학대 연구는 나이 어린 연령의 자녀인 경우에 학대 발생율이 높다고 하여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Hennessy, Rabideau & Cicchetti, 1994; Wallach, 1993; 권자영, 1991; 김혜영, 1989)에 집중되어 있으나 좀 더 연령층을 확대시킨 청소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준비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이면서 자기중심성이 증가하며, 자신의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러한 발달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의 처벌자의 의도를 왜곡해서 지각할 수 있으며, 일탈행동과 같은 비건설적인 방식으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모나 다른 성인들은 이런 독립성 주장에 직면했을 때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 혹은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불안해 하며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불안과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자녀를 학대할 수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타인에게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심층적인 분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청소년의 학대 연구를 다룬 몇 편의 실증적 연구에서 이들은 가정내 학대 경험을 상당히 지각하고 있으며(주영희, 1984;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실제로 자녀학대가 있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녀학대로 인하여 자녀가 받는 상처는 발달상에 심각한 부정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자녀학대의 부정적인 결과를 크게 세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언어적 발달의 장애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당한 경우에 지적 발달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녀학대는 아동의 지적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인지하는 관점도 매우 부정적이며, 언어의 지체도 함께 보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서적 발달의 장애이다. 학대받은 아동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므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불안, 우울, 알콜 및 약물남용(Carlson, 1994) 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행동상의 문제인데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공격성과 과잉행동이 증가하며(연진영, 1992), 신체적 체벌이 많을수록 비행경험이 높았다(심영희, 1988)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나철, 1992; 주영희, 1984; 최윤진, 1993), 범죄 행위와 비행을 발생하는 요인임을 보고(Patterson & Dishion, 1985; Steinberg, 1987; 최규련, 1996)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이들 학대받은 자녀가 폭력을 학습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용교 역, 1993;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Bromberg & Small, 1983; Kalmus, 1984)고 밝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대의 결과는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행동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사후처리적 차원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가출 자녀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자녀 학대 전반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 심리적 변화에 직면해 있어서 이 때 부모에게 받는 학대 경험은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의 정도를 다룬 연구가 면밀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 Wodarski, Kutz, Gaudin, & Howing, 1990)들이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 행동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부적응 행동의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학대의 특성을 밝혀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자녀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정도를 경감시키는 전략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학대로 인한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키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녀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자녀학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녀학대

자녀학대는 고려해야 할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대의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녀학대의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세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첫째, 자녀학대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지,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지 이며 둘째, 부모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결과를 중시할 것인지 이다. 셋째, 신체적 학대만을 학대로 측정할 것인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비신체적 학대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이다. 이러한 몇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자녀학대의 개념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여러 학자(Kempe & Helfer, 1968 ; Gil, 1970 ; Fontana, 197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학대를 협의와 광의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자녀학대를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모나 양육자의 직접적인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다.

자녀학대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험적 연구(고성혜, 1992; 이소희, 1989; Stern, 1988)에서 많이 측정되고 있는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구타(battering)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부모나 양육자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의도적인 공격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등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는 혼육으로 시작한 체벌이 자녀의 반응에 따라 학대로 변할 수 있는 등, 혼육의 한 종류인 체벌과 학대간에 분명한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부모가 의도한 효과를 위한 혼육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편에 대해 부모의 의도이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주영희, 1984).

둘째,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하는데,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 위협하고 욕하는 것 등으로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가져오고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손상을 가져온다. 이는 부모의 기대에 못미치는 무능력에 대한 반응 또는 가정내의 왜곡된 관계(부모의 별거,

이혼)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세째,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자녀에 대한 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노출에서 부터 근친상간,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사회적 금기로 인해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 학대행위이다.

네째, 방임(neglect)은 부모나 양육자가 보호나 감독의 결여로 영양부족, 지도감독의 소홀, 부적절한 위생관리, 교육적인 무관심 등이 일어났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방임의 결과 자녀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받지 못해 자녀가 건강을 위협받고 정서적 발달 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학대의 유형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나, 친부모로 부터의 성적 학대의 빈도는 낮은 것이라고 전제하여 이를 배제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녀학대의 실태를 고찰하여 보면 주로 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미취학 및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한 경험적 연구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주영희(1984)에 의하면 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한 가출아동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9%가 부모의 학대와 부모의 문제로 가출하였다고 밝혔으며, 50.5%의 아동이 학대와 관련된 이유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대상 아동중 매를 맞았다는 아동이 전체의 74.9%였으며, 맞은 도구로는 손, 회초리, 빗자루, 막대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운(1994)은 유형별 자녀학대의 정도를 보면 신체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 가출아동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들보다도 10배 이상이나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남순, 1993).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출아동이 일반아동들보다 훨씬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혔다(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또한, 아동권익보호 신고소에 신고된 아동의 방임이나 태만의 발생율이 전체의 27.2%였다고 하였다(허남순, 1993).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청소년기 학대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학대의 경험은

연령이 낮은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경험될 수 있으며, 이들은 아동과 다른 학대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 유형을 세분화시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2. 부적응 행동

부적응 행동이란 정신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환경의 영향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으로서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여러 연구자(Dubow & Tisak, 1989; Kirt, 1972; Achenbach & Edelbrock, 1983)의 분류에 기초를 두고 청소년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적응 행동을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의 5개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킨 부적응 행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잉활동성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학교규칙을 지키는데 어렵고 심한 학습장애와 관련이 있다.

둘째, 공격성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악의를 품는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욕구 내지 경향을 말한다.

세째, 사회적 위축은 어떤 힘에 눌리거나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이 줄어들고 퍼지지 못하는 상태로 몸을 도사리며 남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네째, 퇴행성은 어떤 장애로 욕구불만에 빠져 현재 도달해 있는 발달 수준 이전의 발달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강박성은 사소한 생각이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생각나는 것으로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면밀하면서 어떤 관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시켜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에 따라 부적응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공격성, 과잉활동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으나,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와 정신신체 증상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홍강의, 홍경자, 1985 ; Achenbach & Edelbrock, 1983)고 하였다.

홍강의, 홍경자(1985)는 상류층 자녀들이 정서적-신경증적인 내적 부적응을 보인 반면에, 하류층으로 갈수록 외적 부적응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미현, 유안진(1996)은 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과잉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이 낮았으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이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이영숙, 1993, 전광희, 1992)에서는 중류층 이상 가족의 자녀에게도 비행 등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적을때(Poole & Regoli, 1979),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 심한 체벌, 모순되고 비밀관적인 태도는 청소년에게 부적응 행동을 가져올수 있다(최규련, 1996)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Patterson & Dishion, 1985; Steinberg, 1987)에서도 부모의 훈육이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며 체벌의 사용이 빈번할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조장될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 소득, 부모의 학력, 직업, 양육행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 행동 영역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응 행동의 하위유형별로 배경 변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적응행동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자녀학대와 부적응 행동

자녀학대는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그 정도에 따라 자녀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험적 연구를 보면 학대가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으며(George & Main, 1979, 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위축, 강박, 우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다(권자영, 1991 ; 연진영, 1992). 또한 부모로 부터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며, 성격이 파괴적, 반항적이고, 과도한 불안을 보인다(곽영숙, 홍강의, 1986)고 하였다.

한편, 학대받은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청소년은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부모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가출 행동은 부모의 학대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주영희, 1984)고 하였다.

Brenner(1984)는 자녀의 학대유형별로 부적응 행동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공격적, 충동적이고 과잉활동성을 보이며, 정서적 학대는 분노, 적대감을 갖으며 위축되어 있다. 방임되어 있는 자녀 역시 과잉활동성을 보이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공격적, 파괴적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녀학대와 부적응 행동은 정적인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 행동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아동을 중심으로 특성을 밝히고 있고, 학대 유형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부적응 행동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 남녀, 1,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지역성을 고려하여 4개 구에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를 제외하여 448명의 자료만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전체 대상자중 52.9%를 차지하는 237명이었고, 여학생은 47.1%에 해당하는 211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연령은 40-44세(45.5%, 50.2%)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부의 학력을 보면 고졸(56.0%), 대졸이상(27.5%), 중졸이하(16.5%) 순이며, 모의 학력은 고졸(61.4%), 중졸이하(28.8%), 대졸이상(9.8%)순이었다.

소득은 150-199만원(30.6%), 100-149만원(30.4%)인 집단이 많았고, 다음은 200만원 이상(27.2%), 99만원 이하(11.8%)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피고용 기능공(27.2%), 사무직(26.1%), 자영상공업(22.1%), 관리직, 전문직(19.2%), 무직, 단순노무직(5.4%)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59.6%)와 취업주부의 경우(40.4%)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많았고, 소득은 100-199만원, 부의 직업은 피고용 기능공, 사무직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용어정의 및 측정도구

1) 부모의 자녀학대는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모의 직접적인 모든 행동을 말한다. 이 도구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 척도, 권자영(1991), 김혜영(1990), 이소희(1989), 최윤라(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7), 정서적 학대(9), 방임(10)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그 빈도에 따라 1년에 0-1회, 1년에 2-6회, 한달에 1-3회, 1주일에 1-3회에 답하도록 4점 척도화(1-4점)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신체적 학대 .75, 정서적 학대 .85, 방임 .72로 나타났다.

2) 부적응 행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환경의 영향으로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말한다. 측정도구는 Achenbach(1978)의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과 김봉임(1992), 김명숙(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으로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강박성, 퇴행성 변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에 5개의 문항으로 총 25문항을 사용하고, 3점 척도화(1-3점)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사회적 위축 .66, 과잉활동성 .61, 공격성 .65, 퇴행성 .60, 강박성 .62로 나타났다.

3) 배경변인은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성, 소득, 부, 모의 학력, 부, 모의 직업,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행동 등으로 나타나 이들을 포함시켰다. 소득은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의 네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부,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의 직업은 무직, 단순노무직, 피고용 기능공, 자영상공업, 사무직, 관리 전문직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모의 직업은 무, 유 집단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춘자(1992), 김봉임(1992)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비합리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요구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양육행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부적응 행동은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부적절한 양육기술 등을 행하였을 경우에 표출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양육행동의 단일 척도로 하여 5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이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1997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에 걸쳐 중학생 남녀 1, 2학년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44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Cronbach의 계수,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자녀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 $p < .01$  -  $p < .001$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학대 전체와 부적응 행동 전체를 보면 정적 상관( $r = .36$ )을 보이고 있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방임과 공격성( $r = .32$ )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다음은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 $r = .26$ ), 방임과 과잉활동성( $r = .25$ ), 신체적 학대와 공격성( $r = .23$ ), 방임과 사회적 위축( $r = .23$ ), 신체적 학대와 과잉활동성( $r = .21$ ), 정서적 학대와 퇴행성( $r = .20$ ), 정서적 학대와 과잉활동성( $r = .20$ ), 방임과 강박성( $r = .20$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의 자녀학대와 부적응 행동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공격성,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 등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영양

섭취, 위생 관리, 교육 등에 무관심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경멸, 무시, 욕설 등을 지속적으로 할 때 자녀는 심리적 긴장, 자존감 손상 등을 겪게 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이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 자녀학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

1) 배경변인, 자녀학대 유형 변인과 부적응 행동의 단순상관관계

<표 2>와 같이 사회적 위축은 방임( $r = .23$ ), 신체적 학대( $r = .19$ ), 비합리적 양육행동( $r = .15$ ), 정서적 학대( $r = .13$ ), 소득( $r = -.12$ ), 성( $r = -.12$ ), 부의 학력( $r = -.10$ )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활동성은 방임( $r = .25$ ), 비합리적 양육행동( $r = .21$ ), 신체적 학대( $r = .21$ ), 정서적 학대( $r = .20$ ), 성( $r = -.13$ )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방임( $r = .32$ ), 정서적 학대( $r = .26$ ), 신체적 학대( $r = .23$ ), 비합리적 양육행동( $r = .20$ ), 성( $r = -.10$ )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퇴행성은 정서적 학대( $r = .20$ ), 성( $r = .18$ ), 신체적 학대( $r = .16$ ), 비합리적 양육행동( $r = .16$ ), 방임( $r = .14$ )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강박성은 방임( $r = .29$ ), 비합리적 양육행동( $r = .26$ ), 신체적 학대( $r = .19$ ), 정서적 학대( $r = .16$ )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사회적 위축은 방임, 비합리적

<표 1> 부모의 자녀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의 상관관계

	사회적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	전체
신체적학대	.19***	.21***	.23***	.16***	.19***	.27***
정서적학대	.13***	.20***	.26***	.20***	.16***	.27***
방임	.23***	.25***	.32***	.14***	.20***	.31***
전체	.22**	.28***	.35***	.22***	.23***	.36***

\*\* $p < .01$ , \*\*\* $p < .001$





<표 3> 부적응 행동에 대한 회귀 분석

변인	사회적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
신체적학대	.12( .11)*	.08( .07)	.06( .05)	.08(.07)	.11(.08)
정서적학대	.01( .01)	.03( .05)	.07( .12)*	.06(.11)*	.01(.00)
방임	.13( .15)**	.14( .16)***	.20( .24)***	.05(.06)	.11(.11)*
비합리적양육행동	.05( .12)*	.07( .16)***	.04( .10)*	.06(.14)**	.12(.24)***
성	-.33(-.08)	-.36(-.10)*	-.26(-.07)	.84(.21)***	
부의학력	-.13(-.04)				
소득	-.17(-.09)				
R <sup>2</sup>	.10	.12	.15	.10	.11
F값	6.93***	11.84***	15.40***	10.30***	13.45***

수치는 b(β)값임. 성 : 남=0, 여=1

\* p<.05, \*\* p<.01, \*\*\* p<.001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15%가 설명이 되었다. 이는 방임, 정서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퇴행성은 성, 비합리적 양육행동, 정서적 학대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10%를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인 경우, 정서적 학대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퇴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강박성은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11%가 설명이 되었다.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이 높을수록 강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경변인, 자녀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 행동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성에 따라 부적응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은 과잉활동성이, 여학생은 퇴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일수록 과잉활동성을 많이 보이고 여아일수록 퇴행성과 강박성이 높다는 김혜련(1993)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비합리적 양육행동은 사회적 위축을 포함한 모든 부적응 행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전반적인 행동발달에 부모의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체적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가져오며, 정서적 학대는 공격성과 퇴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임은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강박성 등의 부적응 행동을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는 유형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체적 학대가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권자영(199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욕설, 무시, 경멸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하면 자녀는 분노와 적대감의 표현으로 공격적이 되거나 퇴행적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고 논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학대 유형으로 입증되었는데, 부모의 방임이 누적되면 자녀는 과잉활동성과 공격성을 일으킨다는 Brenner(198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청소년기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과업 수행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점인데 이 때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자녀는 부적응 행동을 전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성차가 나타나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대 유형이 부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이들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성차를 밝혀 보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자녀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방임과 공격성,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 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은 방임, 신체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 정서적 학대, 소독, 성, 부의 학력이, 과잉활동성은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 성이, 퇴행성은 정서적 학대, 성, 신체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강박성은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은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신체적 학대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10%가 설명이 되었다. 과잉활동성은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에 의해 12%가 설명이 되었다. 공격성은 방임, 정서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15%가 설명이 되었다. 퇴행성은 성, 비합리적 양육행동, 정서적 학대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10%를 설명해주고 있다. 강박성은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11%가 설명이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학대 유형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 하위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방임은 부적응 행동을 다양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부모에게 학대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는 동시에 학대 가정

과 이로 인해 심신의 손상을 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상담 서비스 체계가 활성화된다면 학대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부모의 자녀학대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증되었다. 즉, 청소년기는 부모에게서 점차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지만, 이 때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자녀의 적응/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발달, 부모역할, 부모로서의 양육기술, 부모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부모역할의 문제로 생기는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부모역할 훈련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갖기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만을 국한시켜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며, 부적응 행동의 측정 문항이 극단적인 문항으로 치우쳐 있어 점수가 낮았다는 점, 또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정확하지 않고 모든 학대를 빈도에 의해서만 측정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표집과 측정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녀학대 양상과 부적응 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좀더 폭넓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학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부적응 행동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부적응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학대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2) 광영숙, 홍강의(1986).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5, 37-52.
- 3)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4)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5) 김봉임(1992). 양육태도, 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연구-초, 중, 고생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7)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가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8) 나 철(1992). 가출 청소년의 가족 문제 및 선도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보고서.
- 9) 노정운(1994). 아동학대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신춘자(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12) 심영희(1988). 우리나라의 학생폭력.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 서울시교육연구원.
- 13)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4)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5) 이영숙(1993).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문제 세미나자료.
- 16) 이용교(1993)역. 아동학대 연구 -W. Check 저. 다울.
- 17) 전광희(1992).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 18)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 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19)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4).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20)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 1, 147-160.
- 21) 최윤라(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2) 최윤진(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 23)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24)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23-45.
- 25)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 : 부모 설문에 의한 역학적 조사. 정신의학보, 9(2), 48-63.
- 26) Achenbach, T.M.(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478-488.
- 27) Achenbach, T.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28)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 Health and Company.
- 29) Bromberg, N. & Small, V.(1983). Hitler's psychopatholog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30) Carlson, V.(1994). Child abuse. In V.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San Diego: Academic Press.
- 31) Dubow, E.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32) Gil, D.G.(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United Stat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33) Gorge, C., & Main, M.(1979). Social interaction of young abused children :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 306-318.
- 34) Hennessy, K.D., Rabideau, G.J., & Cicchetti, D.(1994).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 815-828.
- 35)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T.(1984). A multimode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 36) Kalmu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8-37.
- 37) Kempe, R.S. & Helfer, R.E.(1968). *The battered chil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8) Kirt, S.(1972).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2n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39) Patterson, G.R., & Dishion, T. J.(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 63-79.
- 40) Poole, E.D., & Regoli, R.M.(1979). Parental support,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cy : A test of interaction effect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2), 188-193.
- 41) Steinberg, L.(1987). Familial factors in delinquency :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35-268.
- 42) Stern, C.(1988). The recognition of child abuse, in P. Maher(ed.), *Child abuse*, Oxford : Basil Blackwell, 35-38.
- 43)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 75-88.
- 44) Wallach, L.B.(1993). Helping children cope with violence. *Young Children*, May, 4-11.
- 45) Wodarski, J.S., Kutz, P.D., Gaudin, J.M., & Howing, P. T.(1990). Maltreat and the school-age child : Major academic, socioemotional, and adaptive outcomes. *Social Work*, 35, 506-513.